

## 유가(儒家)의 교사(教師) “상(像)”

박성일<sup>1</sup>, 정동욱<sup>2</sup>, 김영태<sup>3</sup>, 박정환<sup>4\*</sup>

<sup>1</sup>중국호남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sup>2</sup>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sup>3</sup>원광대학교 교육학과, <sup>4</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 An exemplary teacher in a Confucian scholar

Sung-il Park<sup>1</sup>, Donguk Cheong<sup>2</sup>, Young-Tae Kim<sup>3</sup> and Jung-hwan Park<sup>2\*</sup>

<sup>1</sup>Dept. of Education technology, Hunan Normal University, China

<sup>2</sup>Dep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3</sup>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sup>4</sup>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각박해지고,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문제에서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시점에서, 유가(儒家)전통의 교사상을 재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상을 권위상(權威像), 인애상(仁愛像), 사범상(師範像)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유가의 전통에서 교사의 권위는 이성적 권위이며, 사회적 제도와 교사의 사회적 역할의 산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권위보다는 화해를 강조하고 있었다. 유가전통에서는 인(仁)을 근본으로, 예(禮)를 그 방식과 수단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과 정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 유가에서는 인간의 모범으로서, 교사의 양호한 도덕품성과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仁愛의 정신이 교사의 권위를 형성하였고, 또 전체적인 유가 전통의 아름다운 교사상을 형성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서양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양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동양전통의 가치관과 그 의미를 재 사고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considering an exemplary teacher in Confucian scholar tradition at the present time of education where teacher's authority gathers dust, the relationship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is getting hard-hearted and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a teacher and expertise does not reach an agreement. For this, the article discussed it by dividing an exemplary teacher into a conception of authority, benevolence and example. In view from a Confucian scholar's standpoint, this article found that teacher's authority is rational authority, and it is a product of social institution and social role of a teacher. Moreover, more important finding was that reconciliation is highlighted rather than authority. In a Confucian scholar, it is focused on love and benevolence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by having humanity as the foundation and courtesy as ways and means. Also a Confucian scholar has demanded a good moral character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a teach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eacher's authority is made by teacher's professionalism, social roles and spirit of benevolence; also it has been making a conception of a teacher in Confucian scholar tra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re-think about the values and meaning of Asian tradition in our educational settings in which western culture and values is influencing Asian societies too much

**Key Words** : Confucian Scholar, Exemplary Teacher, Teacher's Authority, Teacher's Benevolence, Teacher's Example

### 1. 서론

동양 문화권에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유가(儒家)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근대에 이르러 서양문명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그 절대적 위치에서 물러나고 있다. 그러나 평등과 민주를 강조하고, 또 자유와 개인중심을 강조하는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

Tel: +82-10-9843-2620 email: edu114@jejunu.ac.kr

접수일 12년 10월 04일 수정일 12년 10월 22일

개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서양 가치관은 동양 사회의 문화전통과 저축이 되는 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불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도 지나치게 교사와 학생의 평등과 학생중심의 자유와 민주를 강조함으로써 인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교육과 교수의 이념과 방식까지도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숭상하던 교사의 지위와 존엄, 교사와 학생의 끈끈한 정과 사랑, 그리고 유가 전통의 수업의 원리와 방식을 다시 환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양의 교육적 전통과 가치를 다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像)란 “사물의 비취진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서, 교사의 상(像)이라면 교사가 사회문화 구조에 반영된 모습과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천 년 간의 발전과정에서 유가(儒家)의 교사의 형상은 변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상(像)을 형성해왔고, 또 사회문화심리구조의 저변에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교사의 상(像)을 본 연구에서는 권위상(權威像), 인애상(仁愛像), 사범상(師範像)으로 나누어 논의하려고 한다. 교사의 상(像)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 세 개의 상(像)으로 유가(儒家)의 교사상(像)의 윤곽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권위상(權威像)을 논의함은 유가(儒家)의 전통에서 교사의 권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그 현실적 가치를 판단해보기 위해서이다. 인애상(仁愛像)을 논의함은 지나친 평등과 민주를 강조하는 현실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과 정이 각박해진다고 보고, 유가(儒家) 전통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끈끈한 정이 생기는 원인과 그 본질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사범상(師範像)을 논의함은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형상의 원인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유가(儒家)에서 주장하는 교사의 본분과 전문성을 다시 짚어보려는 것이 더 주요한 목적이다.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교사가 지켜야 할 품성과, 능력과 자질을 유가(儒家)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 2. 교사의 “권위상(權威像)”

유가(儒家)의 “만세사표(萬世師表)”의 공자(孔子)로부터 유가(儒家) 문화는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존중하는 풍상(風尙)을 강조해왔다. 《상서(尙書)》에는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 보냈거늘, 군주(君主)와 스승도 함께 내려 보내었다”라는 말이 있다. 즉 “사(師)”와 “군(君)”을 동일시하고 인간을 개화시키는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荀子)[3]는 특히 교사의 지위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바, 심지어 “천지군친사(天地君親師)”를 제기하여, 교사와 천(天), 지(地), 부(父)를 같은 지위에 나열시킨다. 순자(荀子)[3]는 “나라가 흥성하면 반드시 스승을 중히 여길 것이며, 스승을 중히 여기면 법이 존재하게 된다. 나라가 쇠망하면 스승을 천하게 대할 것이며, 스승을 천하게 대하면 법을 어기는 이가 나올 것이며, 법을 어기는 이가 나오면 법이 없어 질 것이다”라고 하여, 교사의 지위를 절대화시키기도 한다. 한(漢)나라 시기에 와서는 유가사상(儒家思想)은 “백가를 몰아내고 유가(儒家)만 존중하는”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기도 한다. 심지어 군주도 교사에게 머리를 굽혀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후 수 천 년 간 교사의 지위는 가끔 저하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기에 교사의 위상과 지위는 아주 높았으며, 특히 유가(儒家)문화에서의 교사의 지위는 신성하고 권위적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이런 권위가 있을 수 있는가? 유가(儒家)는 시종일관 도덕교육을 교육의 근본으로, “인간을 만드는” 일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도(道)”는 인간 행위의 기본 준칙으로써, 결국 봉건사회의 윤리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덕(德)”은 인간 개인이 “도(道)”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륜 도덕을 더 확장하면, 우주만물의 변화규칙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사회의 정치적 질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란 바로 “도(道)”를 갖춘 성자(聖者)와 군자(君子)를 양성하는 일이며,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개 국가의 사회체계 내에서 교사는 당연히 나라의 흥망을 좌우시키는 숭고한 지위에 위치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교사는 “전도(傳道)、수업(授業)、해혹(解惑)”을 자신의 직업으로 하며, 사실상 “도(道)”의 직접적 대표이며, 모범이며,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道)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스승이 존재하는 것이며, 주로 “도(道)”의 지위가 교사의 지위를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 질서의 외재적 형식이 바로 예의제도(禮儀制度)이다. “예(禮)”는 “최고의 도덕”이며, “최고의 인륜”인 것이다. 순자(荀子)는 “인간은 예(禮)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며, 일은 예(禮)가 없으면 성사할 수 없으며, 나라는 예(禮)가 없으면 평온할 수 없다. - 중략 - 예(禮)가 흥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예(禮)가 쇠하면, 모든 것이 난(亂)하게 된다. 나라의 난(亂)을 다스림에 있어서, 결국 모든 것이 예(禮)의 흥망에 달려 있노라”고 한다.荀子[3]는 또한 “예(禮)란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며, 스승이란 예법(禮法)을 바로잡아주는 이니라. 예(禮)가 없으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예(禮)를 알 수 있겠냐" 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儒家)에서 교사는 “예(禮)”의 “화신(化身)”이며, “도(道)”의 “대표(代表)”이며, “덕(德)”의 “전범(典範)”이 된다. 따라서 스승은 마땅히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심층적 차원에서, 사실 유가(儒家)의 권위의식은 사회문화심리구조에 축적된 불평등에 대한 묵인에서 오는 것이다. 《상서(尙書)》에는 ‘유제비제(維齊非齊)’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불평등이말로 공평하고 합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문화 심층적 구조에서 권위와 신분의 차이를 묵인하고 있었으며, 순자(荀子)[3]의 이 말은 수 천 년의 유가(儒家)문화에서 등급제도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되었던 것이다. 불평등과 등급을 강조하는 이런 잠재적 의식에 근거하여, 그리고 “전도(傳道), 수업(授業), 해혹(解惑)”의 사회적 역할로, 교사의 지위와 권위는 자연적으로 지존적(至尊的)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사 집단 내에서 모든 교사의 권위가 똑같이 지존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결국 “전도(傳道), 수업(授業), 해혹(解惑)”의 능력과 수준에 있는 것이다. 유가(儒家)에서는 해박한 학식과 양호한 품성을 갖춘 자만이 이런 과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영예와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리히 프롬(E. Fromm)이나 막스 웨버(Max Weber)의 권위의 개념에서 보면, 교사의 이런 권위는 결국 이성적 권위이며, 혹은 개인적 및 영웅적 형식의 권위인 면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라는 집단의 권위적 형상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儒家)의 교사 권위는 비이성적 권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유가(儒家)는 사회의 불평등과 등급만을 강조해온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묵인하였기에 유가(儒家)는 또한 질서를 강조하게 된다. 불평등은 질서의식으로 이어지며, 질서가 있어야,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유가(儒家)는 “정명(正名)”과 “예악(禮樂)”을 강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의 온정과 화합을 추구했던 것이다. 공자는 “명분이 없으면 말이 서지 않으며, 말이 서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느니라. 일이 안되면 예(禮)와 악(樂)이 흥하지 못하게 되며, 예(禮)와 악(樂)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도 적중하지 않으리라.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망설이게 되니라”라고 한다. “정명(正名)”이란 바로 사회 각 계층, 각종 사회역할 분담에서 상응한 권리와 의무를 규범 짓는 것이다. 유가(儒家)의 이런 요구는 서한(西漢)시기에 이르러,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편 “화해(和諧)” 또한 유가(儒家) 전통문화의 근본정신이고, 유가(儒家) 사회에서 추구하는 최종 목표였다. “화(和)”는 원래 식물생장에서 요구되는 음양조화(陰陽調和)를 말하는 것이었다. 식물은 조화가 되어야만 생장하게 되고, 종(種)이 같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멸종된다고 한다. 같은 의미로, 서로 다른 사물로 조화시키는 것을 “화해(和諧)”라고 한다. 바로, 질서(秩序)와 화해(和諧)는 대립적 통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무질서한 화해(和諧)가 존재하지 않으며, 화해(和諧)가 없는 질서도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儒家)는 “예(禮)를 사용함에 있어서 화(和)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禮)”의 본질은 “서(序)”이며, 결국 등급 및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악(樂)”의 본질은 “화(和)”이며, 화합(和合)과 화해(和諧)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유가(儒家)에서는 예(禮)를 지킴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화해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플라톤이 《이상국(理想國)》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가(儒家)에서도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자기의 직책을 행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게 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과 질서, 그리고 화해라는 기본 이념과, 교사의 사회적 역할로, 유가(儒家)에서는 한편으로는 교사의 지위와 권위를 숭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화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교사와 학생 간의 화해는 “예(禮)”로써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유가(儒家)에서도 교사의 권위를 무의미하게 절대적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유가(儒家)에서는 교사의 권위와 존엄은 숭상하지만, 인격적으로 학생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의 이념을 주장한다. 한유(韓愈)는 “제자는 반드시 스승보다 못 할 필요가 없으며, 스승이라고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자(孔子)도 “인(仁)에 있어서는 스승한테 양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처사하라”고 주장한다. 또 논어(論語)[1]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스승이 있을 것이며, 선(善)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야 하고, 선(善)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야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유가(儒家)에서는 인격적으로 학생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진리의 문제에서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의 권위와 평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인격적으로 학생을 존중하는 것은 인(仁)의 표현이고 예(禮)를 행함이며, 진리문제에서의 평등은 유가(儒家)교육에서 전통적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儒家)에서 보면 교사의 권위는 합리한 것

이고,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권위보다 학생과 교사 간의 조화로운 관계이다. 유가(儒家)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무의미한 평등은 혼돈을 초래하며, 나아가 “교서육인(敎書育人)”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다.

### 3. 교사의 “인애상(仁愛像)”

유가(儒家)는 교사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유가(儒家)는 훌륭한 교사를 자애로운 아버지의 형상으로 비유해왔다. 즉 “하루의 스승이면 영원한 아버지이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유가(儒家)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는 직계친족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고 밀접한 사회인륜관계가 된다. “천(天)은 시(時)를 낳고 지(地)는 재(財)를 낳으며, 인간은 부모가 낳고 스승이 가르친다.”는 것이다. 교사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아버지와 같이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존경하고,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심지어 교사의 무덤을 3년간 지키게 하는 장렬(壯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儒家) 문화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돈독한 정과 사랑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유가(儒家)는 “인(仁)”으로 “애(愛)”를 해석하고, “애(愛)”로써 “인(仁)”을 설명하게 된다. 바로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애(愛)”와 “정(情)”은 유가 윤리에서 “인(仁)”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유가문화에서 “인(仁)”이란 인간과 인간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사이의 관계를 처리하는 도덕적 준칙이다. 공자는 “인(仁)”, 즉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부모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儒家)는 “인(仁)”의 최종 목적이 “대도지행(大道之行)”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대도지행(大道之行)”이란 사람사이의 “인애(仁愛)”를 실현하여, 천하 사람들의 이익을 자각적으로 상호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람 사이의 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공자는 또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으로 “인(仁)”을 해석하고 “인(仁)”과 “예(禮)”를 관련시킨다고 했다. “인(仁)”이란 “예(禮)”의 기본정신이고 내재적 도덕이라고 볼 수 있고, “예(禮)”란 “인(仁)”의 현실적 체현으로서 도덕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인(仁)”은 “예(禮)”의 전제조건이다. 공자는 또한 “인자애인(仁者愛人)”으로 “인(仁)”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면

“인(仁)”과 “애(愛)”, “예(禮)”와 “악(樂)”은 상호 관련되는 관계이며 모든 것의 전제가 된다. “인애(仁愛)”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의 윤리제도를 준수하며,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애(夫婦有愛), 형제유제(兄弟有悌), 봉우유신(朋友有信)”을 실현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체계에서 또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仁”은 내적으로부터 외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나라로, 천하에 이르기까지 조화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仁”은 구체적으로 “충(忠)”과 “서(恕)”에 반영 된다. 공자는 “충서(忠恕)”를 인간을 사랑하는 근본 원칙과 경로로써 “인(仁)”의 “방법(方法)”으로 그 위치를 설정하였다. “충(忠)”의 기본 함의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전심전의, 일심전력, 일편단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恕)” 역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인(仁)”의 정신을 체현하고 “인(仁)”의 실천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논어(論語)·雍어(雍也)》에도 이러한 진술이 있는바, “인(仁)이란 자기가 성취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성취하게 해야 하고, 자기가 이상을 실현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이상을 실현하게 해야 한다. 자기 주위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인(仁)의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상호 존중과 사랑을 실현하여 진정으로 인간사회의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교사의 “인애(仁愛)”의 상(像)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었는가? 유가(儒家)에서는 논리적으로 뒷사람이 먼저 앞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권위를 가진 스승이 먼저 “인(仁)”을 행하여야 하며, 학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儒家) 선철(先哲)들의 교육실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인애(仁愛)는 “박애(博愛)”로 나타난다. 공자는 “유교무류(有教無類)”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교사 애(愛)의 최고 경지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박애(博愛)”인 것이다. 실제 공자는 학생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학생을 받았다. 공자의 3000명의 제자 중 절대 다수가 가난한 학생이었다. 둘째,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즉 공자는 사심 없이 남김없이 자기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극진한 관심이다. 공자는 학생들의 품성, 학업 및 생활과 건강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왔다. 그 과정은 예(禮)를

지키는 과정이고, 인(仁)과 예(禮)의 내적 외적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교사의 사랑은 공명을 일으킨다. 공자가 학생들에게 준 이러한 사랑은 학생들의 스승에 대한 진심어린 존경으로 이어지며, 제자들은 스승의 “대도(大道)”를 굳게 믿고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게 된다. 맹자(孟子)[2]가 말하기를 “덕(德)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며, 공자의 칠십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제자들은 공자의 인격을 숭상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결국 아버지처럼 모셨던 것이다. 공자 사망 후, 학생들은 3년간 무덤을 지켰고 3년이 지나 제자들은 하염없는 눈물로 무덤 앞에서 작별을 고하였고, 자공(子貢)은 그래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여 공자 무덤을 3년 더 지켜서 결국 6년이라는 세월을 스승의 무덤과 함께 했다고 한다.

유가(儒家)는 “인애(仁愛)”로 사회적 화해를 도모하였고 또 사회의 화해를 지켜왔던 것이다. 또한 교사는 “인애(仁愛)”의 상(像)을 가지고 교육의 장에서 실천해왔던 것이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도 자유와 평등과 동시에 또한 박애(博愛)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유가(儒家)에서는 더욱 교사의 인애상(仁愛像)이 부각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면 “인애(仁愛)”는 어느 시대를 넘어 인류의 영원한 주제인 것이고 어느 시대의 교사나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임에는 틀림없다.

#### 4. 교사의 “사범상(師範像)”

유가(儒家)는 줄곧 전통적 교사의 모범적 형상을 권고하여 왔다. “사자(師者), 인자(人之模範也)”, 즉 교사는 인간의 모범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권위와 존엄은 교사의 모범적 형상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교사는 양호한 품성, 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다.

먼저 유가(儒家)는 교사는 “인(仁)”의 품성을 구비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군자(君子)의 유(儒)가 되되, 소인(小人)의 유(儒)가 되지 말거라”고 말하고 “인(仁)”은 유가(儒家)의 최고의 도덕적 준칙으로서 교사가 마땅히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 구비하여야만 합격된 교사라고 주장한다. 순자(荀子)[3]도 교사는 우선 “선(善)”의 품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사의 품성은 유가(儒家)의 전통으로 되어 있었다.

유가(儒家)는 교사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자신이 바르면 (학생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따를 것이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학생들은) 명령해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기의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한다. 공자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솔선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다. 맹자도 “자기가 바르면 천하가 따라 온다”고 주장하여, 교사가 먼저 자기 단속을 잘하고 정확하게 학생을 지도할 것을 즉,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가 바를 것”을 요구한다. 맹자가 주장하는 “정기(正己)”의 표준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이며, 자신이 이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교육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순자(荀子)[3]도 “교사의 언행은 바로 학생들이 모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교사의 수양(修養)을 강조했는데 학생들은 교사의 수양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유가(儒家)는 또한 교사는 반드시 박식해야 하고 재능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많이 배우고, 목표가 확실하고, 자주 묻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공자는 “절에 들어가서도 매사를 물었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수척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맹자는 교사의 지식은 연박(淵博)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어야 하고 또 정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박학(博學)”이란 다양한 지식 학습을 가리키는 것이며, 교사가 연박(淵博)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인 것이다. 순자(荀子)[3]도 연박(淵博)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교사의 기본조건이며, 합격된 교사는 반드시 학습을 평생의 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책을 외우는 일은 끝이 있지만 학업은 끝이 없다.”고 한다.

유가(儒家)는 교사들이 수업의 방법을 숙지할 것도 요구한다. 공자는 모범으로서 맞춤식 수업, 계발식 수업의 원칙을 수업의 실천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조(躁)라고 하고, 말을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은(隱)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고(訥)라고 한다.” 여기서 “조(躁)”, “은(隱)”, “고(訥)”는 수업에서 마땅히 회피하여야 할 것들이다. 공자는 또한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스승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면 공자는 처음으로 학습의 전이(轉移)의 원리를 제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익숙히 알고 있는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원리나 비고츠키가 말하는 “근접발달 영역”의 개념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맹자 역시 수업방법의 다양성 즉 “교역다술(教亦多術)”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수업의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단비처럼 적셔주는 방법, 덕(德)을 키워주는 방법, 가진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 물음에 해석해주는

방법, 자신의 영향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었다. 맹자의 수업방법은 이상의 다섯 가지가 전부는 아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순자(荀子)[3] 역시 수업의 방법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달라야 하며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물어보지 않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을 오(傲)라고 하고, 하나를 물어보는 학생에게 둘을 가르치는 것은 찬(贖)이라고 하며, 양자는 모두 그릇된 것이며, 군자는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과 말하는 것도 오(傲)라고 하고, 말해야 할 사람과 말을 안 하는 것은 은(隱)이라 하고, 남의 기분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고(瞽)이다.”라고도 한다. 《학기(學記)》에서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배운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가르친 다음에 어려움을 알게 된다. 모르는 것을 알아야 반성을 하게 되며, 어려움을 알아야 더 배우게 된다.”고 한다. 즉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발전한다는 “교학상장(教學相長)”인 것이다. 《학기(學記)》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수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강해(講解)”, “문답(問答)”, “연습(練習)”, “유비(類比)” 등 수업의 방법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학기(學記)》에서는 수업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계적으로 암기한 지식으로는 수업이 불가능하며, 둘째, 교사는 교육학 및 심리학적 지식을 가져야 하고 상이한 학생들에게 상이한 수업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계발 및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수업중의 폐단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는 주입식교육을, 암기식방식을,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업하는 것 등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원리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유가(儒家)에서는 교사의 정확한 표현 능력에도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맹자는 교사의 언어는 의미가 깊고 간결하고 또한 형상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지 못하면 “선언(善言)”이 아니라는 것이다. 맹자 자신은 수업에서 많은 비유 및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수주대토(守株待兔)”, “연목구어(緣木求魚)”, “오십보소백보(五十步笑百步)” 등 속담을 수업에 많이 사용하였었다고 한다. 《학기(學記)》에서도 교사들의 수업의 언어에 대하여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교사의 언어가 간결하고 정확하고 흥미롭고 유머적이고 또한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가(儒家)에서는 교사의 옷차림과 매너에도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공자는 교사의 형상(形象)은 온화하고 차분함이 비취져야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단정하고 위엄이 있어야 존엄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 반대로 “지나치게 소박함이 비취지면 거칠게 보이고, 지나치게 문인상(文人像)이 비취지면 허위적으로 보임으로” 이는 교사가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자는 교사는 마땅히 단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친절해야 학생들이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儒家)의 선철(先哲)들은 교육에 드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교육의 실천에 평생의 열의를 바쳤었다. 공자는 “사랑하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으랴? 충성한다면 어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말한다. 교육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다. 실제 공자는 3000명의 제자를 거느렸으며, 그중 72인은 성현(聖賢)이었다. 맹자는 “천하의 영재를 얻기 위하여 교육하노라”라고 함으로써, 교육을 인생의 세 가지 낙(樂)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이란 어휘도 맹자의 이 말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헌신정신이야말로 그들이 불멸의 업적을 이루게 한 주요 원인이었고 유가(儒家)의 교사상(教師像)을 형성한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 5. 결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가(儒家)는 교사의 역할, 직책, 신분의 차이로 교사와 학생의 절대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교사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平等)”은 인격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에만 제한된 것이었다. 유가(儒家)는 교사의 권위도 사실은 고상한 도덕과 연박(淵博)한 지식 및 다양한 재능으로 보장(保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코 “천부신권(天賦神權)”은 아닌 것이다. 유가(儒家)는 교사와 학생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며,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애(愛)와 정(情)을 통하여 획득된다고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랑은 먼저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가(儒家)의 교사는 교직의 전문성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교육을 행해왔던 것이고, 이로써 유가(儒家)의 아름다운 교사상(教師像)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왜 그토록 교사의 권위를 비판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의심하고, 또 교사의 역할문제에 엇갈린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서양 문명과 문화,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왔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뿐만도 아닐 것이다. 혹 우리의 교사가 잘못된 인식으로 비이성적 및 합법화의 권위를 강조해왔을 수도 있고, 유가(儒家)의 전통에서 강조해 온 교사의 전문성을 망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인주의와 이기

주의가 범람하는 현대사회문화구조에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학생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천적 차원의 문제이지 결국 유가(儒家)의 전통과 가치관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시금 유가(儒家)의 전통과 가치관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때라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1] the Analects of Confucius
- [2] the Discourse of Mencius
- [3] the Discourse of Xun-Zi
- [4] the Discourse of teacher
- [5] Liji
- [6] Fayen

### 박 성 일(Sung-il Park)

[정회원]



- 1993년 7월 : 중국 연변대학교 물리학부(문학사)
- 1996년 6월 : 중국 연변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2년 6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공학(교육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현재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ICT, 정보화교육, 교육공학

### 정 동 옥(Donguk Cheong)

[정회원]



- 1992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육과(교육학사)
- 2007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9월 : University of Virginia, Visiting Scholar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수업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 교육공학

###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관심분야>

교육심리,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교육공학, Smart-Education